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지금 필요한 것들

제작된 일본 NHK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재조명하는 다큐를 방송했다. 이 다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일왕의 등장이었다. 일왕은 대책본부를 방문해서 보고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일상적 장면이다. 입헌군주국에서 형식상 국가원수인 일왕이 국가적 재난의 현장을 찾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담당자가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민을 모두 소개(疏開)시키고 있지만, 한 노인이 이를 거부하며 아직 오염구역 내에 머물러 있다는 브리핑을 한 것이다. 순간 일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개를 거부하는 주민을 직접 만나겠노라고 선언한다. 당황한 수행원들의 만류에 일왕은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오염구역으로 직접 들어간다. 수행원과 기자들도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일왕은 오염지역 내의 주민을 찾아가 만난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잡고 말한다. “모두가 본인 부덕의 소지다. 통렬

히 반성한다.” 일본인, 특히 노령세대가 일왕에 대해 가진 정서를 감안하면 노인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순간이다. 노인은 일왕 앞에서 대성통곡을 한 후 고집을 꺾고 결국 소개에 응한다. 상징적이지 않은 장면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지진과 쓰나미다. 이 자연재해는 일왕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입헌군주국인 일본에서 일왕이 가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감안하면 일왕의 책임을 물을 만한 소지는 전혀 없다고 봐도 좋다. 그럼에도 일왕은 스스로 방사능 구역으로 들어가 피해 주민의 손을 잡고, ‘내 탓’이라고 말했다. 일본 연구서의 고전문 ‘국화와 칼’에서 저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전환은 태평양의 섬들에서 발견되는 신성한 추장(Sacred Chief)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 추장이 머리를 숙인 것이다. 아무도 왕의 책임이라 여기지 않는데도 그랬다. 이것이 위선이건 진심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 누구의 책임인가는 나

중에 따져도 좋다. 하지만 최고 지위에 있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순간, 원전사고로 패닉에 빠졌던 일본인들이 얼마나 큰 심정적 위로를 받았을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원래 일본이 한 손에 국화를 다른 손에는 칼을 든 이중적 민족이라 하더라도, 또 이 장면이 이중성의 전횡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측면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권위를 가진 자는 태생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을 기피한다. 사과 자체를 권위에 대한 손상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재는 다르다. 최고 권위자가 머리를 숙일 때 대중은 위로받고 상처와 앙금을 녹일 수 있게 되고, 권위는 더욱더 강화된다. 일왕은 그 한 장면으로 반대자들의 입을 최소 몇 년은 틀어막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이런 ‘해원 상생’의 과정이 없다. 대통령부터 관료 정치인까지 모두 사과에 인색하다. 사과는 곧 권위의 붕괴라고 여기는 탓이다. 그래서 곧잘 등장하는 표현이 ‘유감’

이다. 유감이라는 표현에서 진정성을 느낄 사람은 유치원에도 없다. 지난 수요일, 사태 수습에 골몰해야 할 삼성병원 원장을 서울에서 오송까지 불러 질책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들은 안도는커녕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국가 방역망이 뚫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으면, 사과가 먼저고 질책은 다음이다. 실제 잘잘못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국민은 전염에 대한 공포와 함께, 우리나라가 확실 거점으로 취급받고 여행 기피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질병에 대한 실체적 공포만큼이나 당혹과 분노, 수치도 큰 것이다. 국민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지니나 이해를 구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정부와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감’과 같은 유희적 수사가 아닌, 진심 어린 위로다. 그 다음 총리대행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대책위원장을 맡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전례가 없거나 과잉이라고? 그게 바로 정치다. (지식나눔 네트워크 대표)

社說

U대회 성공 위해 메르스 방역 선제 대응을

다들달 3일 막을 올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고 있다. U대회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빛고를 사람들 모두의 하나 된 뜻일 것이다. 하지만 6년 동안 준비한 대회가 생각하지도 못한 전염병 때문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직 광주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자나 경우 병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메르스에 광주가 뚫릴 경우 U대회 성공은 물 건너가게 될 수도 있다. 재정지원주연합이 엇그제 점검회의를 열어 상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것도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메르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선수단들이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가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엔트리는 마감됐지만 언제라도 대회 참가 포기를 통보해 오는 국가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내에서 메르스 공포가 한참 확산되던 지난 3월 최종 엔트리가 마감됐는데 그 뒤 보름 넘게 29개국이나 추가로 접수해 대회 참가 규모가 139개국 1만 2975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해자 최고위원이 “가장 완벽한 메르스 대책은 가장 강력한 대회 지원책”이라면서 “정부가 메르스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확인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최근 메르스 대책비 62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완벽한 대비는 방역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박 최고위원도 지적했지만 외국 선수나 응원단이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국가가 모든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전남 국비 확보 정치권 적극 나서야

광주시에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의 각 부처 국비 반영률이 20%대에 그치면서 호남고속철 2단계 등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정부 부처가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지출 요구안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49건의 주요 사업에 국비 5187억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액은 21%인 1093억 원에 그쳤다. 18건은 아예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전남도 역시 47건에 7886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26%인 2036억 원에 불과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도 겨우 10%만 반영돼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른 20건은 착수조차 못할 형편이다. 최근 지역의 예산은 증가 추세인 것과는 달리 지역 예산은 예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서울을 오가며 얻어낸 결과치

고는 초라하다. “열심히 뛰었는데...”라며 불멘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결국 예산은 수치가 말해주는 법 아닌가.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 기재부가 3자에 걸쳐 부처 요구안을 심의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면 또다시 예산안을 심의, 연말에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광역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기에도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임은 잘 안다. 그래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시 한번 국비 확보를 위한 전쟁 수준의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회 상추팀을 한층 보완하는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을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진까지도 시·도 실무 공무원들과 유기적 체제를 강화하면서 지역구나 여야를 가리지 말고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전선을 펼쳐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원 광 나주 원각사 주지

을 부리기 위한 주문 정도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천수경(千手經)이란 불경의 첫 구절인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천수경은 현재 대부분의 사찰에서 예불을 올릴 때 빠뜨리지 않고 독송하는 불경 중의 하나이며 그 시작인 정구업진언은 해석하자면 ‘입으로 지은 죄를 정화하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독송되는 불경의 첫머리가 입으로 지은 죄를 정화하는 주문이라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국의 총리가 정당치 못한 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결국 총리직을 물러나야 했었는데, 그분이 이 진언을 알고 있었다면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망치 않은 생각이 들쩡 해봅니다. 사실 총리가 사퇴까지 하게 된 데에는 그분이 받았다는 몇 천만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물한 심정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모기업인이 남긴 메모에 몇억을 주었다고 적혀

있는 사람도 여럿 있는데 몇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총리를 먼저 비난하고 파헤친 이유는 아마도 총리 자신의 말이 깔이 되어 돌아온 것이 이유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부당한 돈을 받았다면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 정말 자신의 정치생명을 자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셈이지요. 시중에 떠도는 경구(驚句) 중에 ‘사람이 귀가 두 개인 것은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는 것이고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변의 말을 더 소중히 들으라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되 자신의 말은 신중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치인인데 일반 대중이든 말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은 공통된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나 공인(公人)들이 말을 더 조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다수인의 주목을 받고 있기

에 한마디 말의 파급력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은 곧 약속입니다. 앞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마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세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상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법이든, 도덕이든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진다면 더 이상의 안정과 발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으로 짓는 입이 다른 여러 업보다 크고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수천안으로 세상 만물을 돌보시는 관세음보살께서 설법하신 천수경에 첫 번째 구절이 정구업진언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입니다.

기 고

‘광주역-송정역 전철화로 KTX 개통 부작용 해소’를 읽고

KTX 환승 쉽도록 광주역 열차 시간 조정도 필요



이 창 열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학박사

그러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철화 계획을 추진함과 별개로 현재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은 새마을(무궁화) 열차의 광주역 출발 시간 조절이다. 예전부터 광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두 열차역에서의 호남 KTX 출발’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의 ‘한 도시 두 역 불가’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새마을과 무궁화 두 종류 뿐이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무궁화 열차로 서울 용산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므로 같은 구간의 고속버스에 비해 가격 및 시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과 무궁화 열차의 출발 시간을 조절하여 익산역 혹은 정읍역에 도착하는 호남 KTX와 환승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광주역에서 새마을(무궁화) 열차를 이용, 익산역에서 환승해 용산역으로 갈 수 있다. 광주역에서 익산역으로 새

마을 열차를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15분 내이며, 익산역에서 출발해 용산역으로 도착하는 KTX도 소요 시간이 이와 비슷한 1시간 15분 내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승 대기 시간이 30~40분 정도로 지나치게 길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새마을(무궁화)의 광주역 출발 시간을 조정해 익산역에서 호남 KTX를 환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설정하고 같은 플랫폼에서 도착하는 호남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광주역에서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을 대략 2시간 40분 정도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 만약, 정읍역을 KTX 환승역으로 활용한다면, 소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호남 KTX 개통전의 광주역~용산역의 약 3시간보다 20분 정도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종래 광주역~용산역 KTX 요금과 비슷해 열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광주 북구 및 동구 지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가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새마을(무궁화)~KTX 환승은 승객의 급격한 증가로 혼잡함을 겪고 있는 광

주송정역의 수요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호남 KTX가 정착하지 않은 이후 쇠락하고 있는 광주역 인근의 상권을 보호하는데에도 일정량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익산역(혹은 정읍역)에서 광주역으로 출발하는 새마을(무궁화) 열차의 출발 시간도 같은 역에 도착하는 호남 KTX의 시간에 맞추어 조절한다면, 서울을 포함한 타도 및 시군에서 광주 구도심으로 접근하는데도 편리할 것이다. 이 방안은 새로운 계획이나 건설 같은 예산 및 시간의 투입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단지, 적절한 수요 조사와 환승 시간 조절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광주시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긴밀한 협의만 이룬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환승 방안은 장기적인 광주시~송정역 전철화 방안 혹은 다른 대안이 실시될 때까지의 임시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광주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광주 북구 및 동구에 거주하는 시민 및 광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無 等 鼓

스스로를 ‘야매 출판인’이라 칭하는 북스피어 김홍민 대표가 쓴 책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를 읽다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 추리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안달이 나는 ‘결말 부분’을 봉인한 채 출간된 책이 있었다는 대목이다.

키의 추리소설엔 꼭 등장하는 게 있다. 책의 말미 즈음에 자리한 ‘독자への 도전’이다. 엘리리 퀴는 “독자들에게 무엇 하나 감추지 않은 페어플레이 게임의 신조에 따라 모든 단서를 공개했으니 누가 범인인지 맞춰 보라”며 독자들을 부추긴다. 하지만 추리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지 저자가 도전장을 던진 그 시점에서는 한 번도 범인을 알아채지 못했다.

장르문학

1955년 출간된 빌 벨린저의 ‘이와 손톱’ 영문 초판은 결말 부분이 봉인된 채 세상에 나왔다. 대신 출판사는 결말 부분을 뜯지 않고 가져오면 책값을 돌려준다는 대담한 마케팅을 펼쳤다. 이 정도의 이야기 전개라면 독자들이 결말을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지난 2007년, 당시 편집 중이던 미야메 미유키의 소설 ‘쓸쓸한 사냥꾼’에서 이 대목을 읽은 김 대표는 일어난 영문학을 통해 제작 방식을 확인하고 한국어판 초판에 한해 결말을 봉인본으로 제작했다. 책은 기대 이상 팔려 나갔고, 한 권은 결말을 보기 위해, 또 한 권은 봉인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기 위해, ‘Y의 비극’, ‘이집트 십자가 미스테리’ 등의 국명 시리즈로 유명한 ‘엘러리

퀸’과 ‘미스터리(추리) 분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격월간 ‘미스테리아’를 창간했다. 미스테리아는 미스테리(mystery)와 히스테리아(hysteria)를 섞은 단어로 ‘미스테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뜻한다. 독자들을 이야기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할 한국 장르문학 작가의 등장을 기대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2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